

패션비즈니스 제28권 4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8,
No. 4:113-128, Sept. 2024
[https://doi.org/
10.12940/jfb.2024.28.4.113](https://doi.org/10.12940/jfb.2024.28.4.113)

Corresponding author

Seunghee Suh
Tel : +82-2-760-0506
E-mail : shsuh@skku.edu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탈경계적 특징

최기정* · 설가예 · 서승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수료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Boundaryless Characteristics of Posthumanist Black Color Fashion

Kijeong Choi* · Jiayi Xue · Seunghee Suh†

*Doctoral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Master's Degree Holde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Keywords

black color fashion,
boundarylessness,
Posthumanism,
Posthumanist fashion
블랙 컬러 패션, 탈경계성,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패션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boundaryless characteristics of Posthumanist black color fashion by examining fashion collections from 2018 to 2023 that explicitly incorporated Posthumanist paradigm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Black color fashion reflects key Posthumanist attributes such as dissolution of boundaries in ecology, academia, gender, and Western-centrism. These characteristics are manifested as 'organic expression of nature and technology encompassing the body,' 'robust expression of hybridized imagery,' and 'fusion of Easter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In the 'organic expression of nature and technology,' flora and fauna motifs are applied or an advanced technology is employed to realize organic forms, offering an experimental representation of post-anthropocentrism, focusing on avant-garde and sensuous fashion images. 'Robust expression of hybridized imagery' combines masculine body expressions with bold accessories to convey a resistant fashion image to gender identity norms while utilizing traditional male fashion items to present a strong and charismatic image. 'Fusion of Eastern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integrates traditional elements from various Eastern cultures into materials, producing opulent yet ascetic fashion images through designs that can conceal the body's silhouette, reflecting a restrained image of black in Eastern cultures. This study provides a multi-layered interpretation of black color fashion in the Posthuman era, addressing themes such as 'representation of diverse organic life forms, gender fluidity, and challenges to Western-centric narratives,' contributing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fashion interacts with socio-cultural contexts.

1. 서론

기술은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관념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 오늘날 모든 학문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인간상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새로운 현대 기술 시대에 맞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 이해를 전제로 대두된 사상이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며, 특히,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바이오 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인공지능의 발전은 포스트휴먼 시대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하였다(Ferrando, 2019/2021; Herbrechter, 2013).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류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신체보다는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며, 보편적 성 구별을 제시하는 휴머니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대안을 찾으려는 사상이다. 포스트휴먼(Posthuman)을 지향하는 두 가지 주요 사상으로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 있으며, 이들은 인간의 미래와 기술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신체적 능력 향상을 통해 더 진화된 인간을 지향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은 인간 발전을 위해 기술을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인 휴머니즘 성격을 지니지만, 포스트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기술의 공존과 조화를 지향하여 탈인간중심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트랜스휴머니즘의 경우 기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여 더 나은 인간으로 변모하고자 하는데 이때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신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한다. 반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신체와 정신의 분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조건적 한계를 인정함에 따라 몸의 초월이 아닌 “체현(embodiement)”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Lee, 2022).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이원론”, “탈-인간중심주의”, “탈-인류중심주의적” 성격(Ferrando, 2019/2021)은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하고 경계를 짓는 것을 지양하는 ‘탈경계적’ 성격을 지닌다. 패션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대표적인 대중 매체로 역할하므로 이러한 포스트휴머니즘의 탈경계적 특징은 포스트휴머니즘을 지향하는 패션에 있어서도 중요한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포스트휴먼에 관련한 패션 연구로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과 SF 영화에서 포스트휴먼의 신체 표현특징을 분석한 연구(Choi, 2011a; Choi, 2011b)와 패션 콜렉션에서 나타나는 포스트휴먼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Han & Park, 2020), 패션 이미지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특성을 도출한 연구(Choi, 2023)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지나친 신체

과장이나 변형을 묘사함으로써 트랜스휴머니즘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 포스트휴머니즘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디자인(Smelik, 2022a)과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디자인을 포스트휴머니즘으로 해석한 연구(Castañeda, 2022)가 있으나 해당 연구는 특정 디자이너의 작품에 한정하여 포스트휴머니즘을 고찰한 연구로 전반적인 포스트휴머니즘 패션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모든 인간을 주관적인 존재로서 존중하고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장을 채택하여 진행되었다.

메를로 폰티(Merleau-Ponty)는 객체가 지니는 ‘색(color)’이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Connolly, 2010). 이는 색이 단순한 시각적 속성을 넘어선 인지적, 정서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색은 특정 객체에게 기존의 인식의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Coole, 2010).

특히, 블랙 컬러는 패션에서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적 존재와의 교감과 조화를 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Castañeda, 2022). 실험적이고 유기적인 패션으로 포스트휴먼 패션을 선보이는 패션디자이너 케이 니노미야(Kei Ninomia)에게도 블랙 컬러는 “강인함과 깊이감 그리고 아름다움”의 표현이다(Fury, 2018). 이처럼 블랙 컬러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사상과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대표적인 색상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성격을 함의하는 블랙 컬러 패션을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Posthumanist black color fashion)’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블랙 컬러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블랙 컬러 패션과 경제 상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Koh, 2018), 블랙 컬러의 색채 및 패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Yune & Kim, 2005; Lee & Ha, 2020; Seok & Geum, 2012), 블랙 컬러 패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Shin & Choi, 2014), 블랙 컬러 배색 및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Lee, Kim, Lee, Ha, & Kim, 2020; Je & Lee, 2009), 특정 디자이너 또는 아이템의 블랙 컬러 패션을 분석한 연구(Kwon, Syn, & Lee, 2015; Kim, 2007; Kim & Chae, 2004), 블랙 컬러를 실증주의 사상의 관점으로 해석한 연구(Suh & Kim, 2011)가 있다.

패션이 시대정신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블랙 컬러를 사

상적 사고로 분석한 연구는 Suh and Kim(2011)이 유일하고, 블랙 컬러 패션의 포스트휴머니즘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 나타나는 탈경계적 특징과 그에 따른 패션 이미지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 내재된 탈경계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디자인, 실루엣, 소재 등 패션디자인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블랙 컬러 패션에 반영되는지를 탐구한다. 둘째, 탈경계적 특징에 따라 도출된 블랙 컬러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고, 도출된 패션 이미지가 지니는 미학적, 문화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스트휴머니즘과 블랙 컬러 패션에 관한 문헌 연구와,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사례를 연구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머니즘이 반영된 패션 연구는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관념을 이해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패션의 컬러가 착용자의 심리나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Han, Kim, & Kim, 2015)에서 본 연구는 블랙 컬러 패션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 패션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함에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포스트휴머니즘

1)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

포스트휴머니즘의 어원은 포스트모던 문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합 핫산(Ihab Hassan)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포스트(post)’라는 접두사가 나타내듯, 포스트휴머니즘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며, 이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촉진한 새로운 시대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전의 휴머니즘 시대에서 추구되었던 인간상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Ferrando, 2019/2021). 즉, 포스트휴머니즘은 현대 인간에 대한 반성적 과정으로, 기존 휴머니즘에 의해 제시된 인간상을 재고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인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니체의 ‘신의 죽음’과 푸코의 ‘인간의 종말’ 선언은 포스트휴머니즘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니체의 ‘신의 죽음’은 결국 신의 자리에 대신하였던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고

(Kang, 2015), 죽음을 맞이한 ‘인간’은 ‘유럽 중심의 인문학적 주체로 보편적 타당성을 지녔던 존재’로 기존 휴머니즘이 빛은 인간상을 지칭한다(Braidotti, 2013). 푸코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에피스테메’와 연결하여 탐구하였다. 여기서 ‘에피스테메’는 각 시대마다 옳다고 인정되던 지식의 체계를 의미하며, 푸코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당시 권력과 힘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완전히 진실되게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Nayar, 2014). 이러한 니체와 푸코의 주장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며, 다수의 포스트휴머니스트(Posthumanist)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범주와 분류는 포스트휴머니즘을 형성한 기저 사상 혹은 분야에 따라 구분되거나 추구하는 포스트휴먼 형성에 기술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먼저, Ferrando(2019/2021)는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기술과의 공존을 탐구한 케서린 헤일스의 문학을 바탕으로 발전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접근을 포함하는 ‘문화적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인식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분류한다. Braidotti(2013)의 경우에는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반보편주의, 탈식민주의적” 주장에 기반을 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과학 기술 분야가 사회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과학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 휴머니즘의 인간에 관한 정의를 재정의하고 수정하려는 ‘도덕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분류한다. 페란도와 브라이도티가 제시한 범주에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공통되나, 각 문화적 측면의 포스트휴머니즘과 과학 기술적 측면의 포스트휴머니즘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Loh(2018/2021)의 경우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페란도가 분류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문화적 포스트휴머니즘’의 결합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영향을 미친 후기구조주의(Herbrechter & Callus, 2008)가 ‘텍스트와 텍스트를 접하는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한 해석, 즉 상호작용’을 유의미한 과정으로 간주함(Kim, 2021)에 따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문화적 접근 또한 포함하는 범주로 해석됨에 있다. Loh(2018/2021)에 따르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앞서 언급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과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추구하는 포스트휴먼에 기술이 더 직접적으로 활용된 경우로, 기존 '인간'의 대안점으로 기술 집약적인 "인공적 타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즉,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먼에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트랜스휴머니즘과 유사하지만, 트랜스휴머니즘과는 달리 신체적 한계를 지닌 '인간'을 개종하지 않으며 존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처럼 포스트휴머니즘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소개되지만, 공통적으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이 포스트휴머니즘의 핵심적 주장이자 주요 갈래로 판단할 수 있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문화 발전을 수용하면서 인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휴머니즘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별, 보편적 성역할 및 인종의 구분,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Braidotti, 2013; Herbrechter, 2013; Nayar, 2014). 스테판 허브레흐터(Stefan Herbrechter)(Herbrechter, n.d.)에 따르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 중심적 사고 및 인간 중심적 사고의 단일한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 변화와 문화적 진화를 동시에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시대 내에서 지속적인 재고를 통해 인간 및 비인간, 기술과 자연 사이의 상호존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개방적이며 성찰적인 태도는 개인과 문화를 독특하고 주관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생태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과 문화를 독특하고 주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탈 인간 중심적인 생태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장(Braidotti, 2013)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머니즘을 고찰하였다.

2) 포스트휴머니즘의 탈경계적 특징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존 휴머니즘이 제시하였던 이원화된 구분인 자연과 문화, 신체와 정신, 여성과 남성에 관한 재고찰의 필요성과 인간이 우위에 있다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인간중심적 사고에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점은 기존 휴머니즘이 제시한 인간과 비인간에 관한 구분인데, 포스트휴머니스트는 이러한 구분이 결국 인간 외의 비인간에 관한 대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Loh, 2018/2021).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을 통해 지어졌던 인간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 관해 고찰하고, 다양성과 주관성을 존중하는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이러한 공

통적 특징을 탈경계로 분석하였으며, 탈경계적 특징을 '생태학적 탈경계', '학문의 탈경계', '성의 탈경계',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의 탈경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주체 없애기(without a subject)"를 통해 인간과 유기체 즉, 동물, 식물과 같은 모든 생물체 대등한 위치에 두고자 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지닌다(Aretoulakis, 2014). '생태계(ecosystem)'는 생물학적 군집과 그 군집이 속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지만, '생태학(ecology)'은 이를 "초개체 시스템(superindividual complex)"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별 생물체와 그 생물체가 속한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더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학문이다(Friederichs, 1958). 따라서 생태학은 생태계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을 확장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 간의 복잡한 관계에 관해 탐구하여(Friederichs, 1958; "What is ecology", n.d.) 생물체가 존재하는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What is ecology", n.d.).

포스트휴머니즘 생태학에서는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인정하고, 기술과 인간, 동물, 식물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는데(Aretoulakis, 2014), 이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인간과 비인간, 기술을 동등한 생태학적 요소로 인지하고, 이들 사이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Smelik, 2022a). 포스트휴머니즘의 기계와 인간 및 비인간의 조화와 깊게 연관된 개념인 '사이버네틱스'는 통신과 자동 제어 시스템을 다루는 정보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Song, 2023). '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은 원활한 정보전달이 더 나은 '인간'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기계는 모두 고유의 정보전달 및 제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전달 개선을 위해 기계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Kim, 2019; Song, 2023). 이에 따라, 해당 개념은 기계와 인간의 육체적 조화라도 설명하기도 하며,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개념과 함께 "인간과 기계의 공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도 활용된다(Lee, 2022).

이러한 관점에 따라 포스트휴머니즘은 '생태학'에서 인간을 세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사고나 '자연과 문화'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고,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기계의 공존'을 포용하여 '생태학적 요소 사이의 탈경계'를 지향하는 '생태학적 탈경계' 특징을 지닌다.

둘째, '학문의 탈경계'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이미지, 물리학, 생물학,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예술과의 협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문학과 과학

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현상을 단일 분야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여러 학문 간의 융합적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이러한 접근이 시작된 것이다(Braidotti, 2013). 즉, 포스트휴머니즘은 과학과 기술이 생활 전반에 활용된 사회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학제성(interdisciplinary)’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학문 간의 혼합은 “제3의 공간”, 즉 새로운 학제 간의 융합을 창출하게 되고 다원화된 문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Herbrechter, 2013).

셋째, ‘성의 탈경계’는 기존 휴머니즘이 규범화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상태의 특정 인간됨의 양식을 새로운 일반화된 기준으로 변환함으로써 인간은 ‘성’에 대한 초월적 가치를 획득함을 의미한다(Braidotti, 2013). 마지 피어시(Marge Piercy)는 남성 중심의 휴머니즘이 양산한 생물학적 “속박(enchainment)”에서 초월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스트 이리가레(Luce Irigaray)는 휴머니즘이 제시했던 남성의 반대가 여성이라는 인식을 비판하고 각 개인을 “유동체(fluid selves)”로 존중하고 그들이 갖는 성적 욕망 또한 유동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ayar, 2014).

즉,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성의 탈경계’는 기존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이고 이분법적 구분과 남성 중심의 성 역할 구분(Braidotti, 2013)과 기존 성적 구분에 부여된 기대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나 해러웨이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기술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기존의 성 구별법은 적용의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성별의 모호성과 다원성을 제시하였다(Kim, 2014).

넷째, ‘서구중심주의의 탈경계’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담론과 연계되어 인간과 비인간의 범주 구분에 유색인종에 관한 인종차별 또한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비판하는 사고이다.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은 휴머니즘에서 중요시하는 “이성과 자기반영성(self-reflexivity)”이 유럽에서 기인하였다고 여기는 사고가 휴머니즘 형성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Braidotti, 2013). 이러한 사고는 유럽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적 성격을 형성하였으며 식민주의와 연결되어 유색인에 대한 차별에도 영향을 미쳤다(Nayar, 2014). Ferrando (2019/2021)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동양 사상에서 찾았고 이원론적 구분 및 우위를 두지 않는 도교의 동양 사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조화를 중시하는 태

도, 즉 인간의 주관성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사고를 대변한다.

III.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탈경계적 특징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맥락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상과 현상을 통해 도출한 주제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Creswell, 2013/2015) 사례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포스트휴머니즘에 관한 문헌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머니즘 패션 관련 사례 수집을 위해 연구 시점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구글에서 ‘Posthumanism fashion collection’, ‘Posthuman fashion collection’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패션 콜렉션에서 ‘포스트휴먼’ 혹은 ‘포스트휴머니즘’을 컨셉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2018년 F/W 콜렉션부터(Evans, 2018c) 2023년 F/W 콜렉션까지의 사례를 패션 전문 웹사이트와 패션 전문 잡지 및 언론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의 출처로는 온라인 패션 커뮤니케이션 전문 웹사이트인 SHOW studio(“About”, n.d.-a), 예술, 문화적 맥락에서 패션 정보를 전달하는 패션 전문 잡지인 AnOther Magazine과 DSCENE(“About us”, 2011; “About”, n.d.-b), 세계적인 패션 전문 잡지인 Vogue 및 글로벌 언론사 가디언지(the guardian)(“About us”, n.d.; “Vogue”, 2024)의 웹사이트에서 ‘Posthumanism’ 또는 ‘Posthuman’으로 언급한 10개의 브랜드의 14개 패션 콜렉션 사례를 수집하였다(DSCENE, 2022, 2023; Evans, 2018a, 2018b, 2018c, 2018d; Moss, 2018; Pfeiffer, 2022; Pithers, 2022; SHOW studio, 2019a; SHOW studio, 2019b).

선정한 패션 콜렉션은 Gareth Pugh(2018 F/W), Noir Kei Ninomiya(2018 F/W), Gucci(2018 F/W), Xander Zhou(2018 F/W; 2019 S/S), Cottweiler(2018 F/W), Iris van Herpen(2018 S/S Couture; 2019 S/S Couture; 2022 F/W Couture), Maison Margiela(2018 F/W Couture; 2018 F/W), Marine Serre(2020 S/S), Christian Dior(2022 F/W), Annakiki(2023 F/W) 콜렉션이다.

둘째, 선정된 콜렉션에서 블랙 컬러 패션 이미지의 사례 선정을 위해, 상하의 전체 올 블랙 컬러 룩으로 블랙 컬러 사용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상하의 전체 올 블랙 컬러룩은 타 색상을 조합하지 않으므로써 착용자가 전하고자 하는 블

랙 컬러가 지니는 메시지와 정체성 표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Douedari, 2022). 이에 따라 선정된 컬렉션 중 상하의 블랙 컬러 사용이 없었던 Iris van Herpen의 2019 S/S Couture와 Maison Margiela의 2018 F/W Couture 컬렉션은 이미지 수집에서 제외함으로써 총 12개의 패션 컬렉션에서 138개의 블랙 컬러 패션 이미지 사진을 수집하였다.

셋째, 패션 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3인의 동료 검토 과정(peer review)을 통해 본 연구에서 고찰한 포스트휴머니즘의 특징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블랙 컬러 패션 이미지 43개를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11개의 패션 컬렉션에서 95개의 사진을 최종 선정하였다.

넷째, 수집한 자료 분석과정을 거쳤다. 먼저, 95개의 패션 이미지를 질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인 '반복적 비교분석법(Yu, Jung, Kim, & Kim, 2012)'을 활용하여 고찰을 통해 분석한 포스트휴머니즘의 탈경계적 특징에 따라 1차 분류화시켰다. 1차 분류화하고 이름을 붙인 자료는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이름을 재부여하였고 같은 성질을 띠는 자료들을 재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포스트휴머니즘의 탈경계적 특징이 반영된 패션은 최종적으로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으로 범주화하였다. 포스트휴머니즘의 '학문의 탈경계'는 패션에서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이 패션과 과학 기술이 융합되어 유기체적 모습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술과 융합된 모습이 공통됨에 따라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에 포함되었다.

95개의 사진 중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에 해당하는 사진은 총 57개,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에 해당하는 사진은 총 32개,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에 해당하는 사진은 총 6개로 분류되어,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의 특징이 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블랙 컬러 패션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제시한 패션 이미지 유형을 분석하고, 선정된 각 사례의 패션 이미지 분석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탈경계적 특징에 나타난 블랙 컬러 패션 이미지를 도출하였다(Figure 1). 선행연구는 최근 15년간 진행된 연구로 한정하였으며 그중 특정 디자이너의 블랙 패션에 관한 연구와 특정 블랙 아이템에 관한 연구, 특정 사상과 관련된 블랙 패션에 관한 연구는 제외한 5개의 연구(Je & Lee, 2009; Koh, 2018; Lee & Ha, 2020; Seok & Geum, 2012; Shin & Choi, 2014)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도출한 범주에 따라 분류된 사례들에서 블랙 컬러 패션 이미지가 각 범주에서 어떤 기능과 함의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한 내용 및 도출한 특징별 대표적인 사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동료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최종 정리하였다.

IV.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탈경계적 특징

1.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

포스트휴머니즘 생태학에 따르면, 블랙 컬러 패션의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자연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포괄하여 탐구한다(Aretoulakis, 2014). 따라서, 포스트휴먼 패션은 자연과 문화의 '혼종성(hybridity)'을 통해 탈인간중심적 사고를 표현하며(Smelik, 2022b), 이는 유기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패션이 신체를 감싸는 형태로 구현된다. 이러한 표현은 포스트휴머니즘의 탈인간중심적 태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 특징을 '인간과 자연의 결합' 및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자연'은 생태계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식물학자 아서 텐슬리(Arthur Tansley)는 생태계를 생물학적 개체군과 비생물학적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체계로 정의하였다(Tansley, 1935). 이에 따라, '자연'은 텐슬리가 설명한 생물학적 개체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범주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특히 '인간과 자연의 결합'을 중심으로, '식물과의 결합' 및 '식물과 동물의 결합'을 도출하였다.

'식물과의 결합'의 사례로, 느야 케이 니노미야(Noir Kei Ninomiya)의 2018년 F/W 컬렉션(Figure 2)은 얼굴과 신체 전체를 덮은 꽃장식과 꽃 모티프가 연결된 드레스에 튜(tulle) 소재와 오간자(organza) 소재, 폴리에스터 소재의 반사적 성질을 활용하여 실제 꽃의 자연스러운 볼륨을 표현하였다(Leitch, 2018). 이를 통해 드레스는 정형화된 실루엣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자연물과 같은 실루엣을 형성하였고, 나아가 모델의 얼굴을 꽃장식으로 가림으로써 인간의 신체와 패션 사이의 구분에 모호함을 표현해 인간 혹은 식물이라는 구분법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블랙 컬러의 꽃'을 신체와 의상 전체를 덮은 표현으로 야방가르드한 이미지(Je & Lee, 2009)를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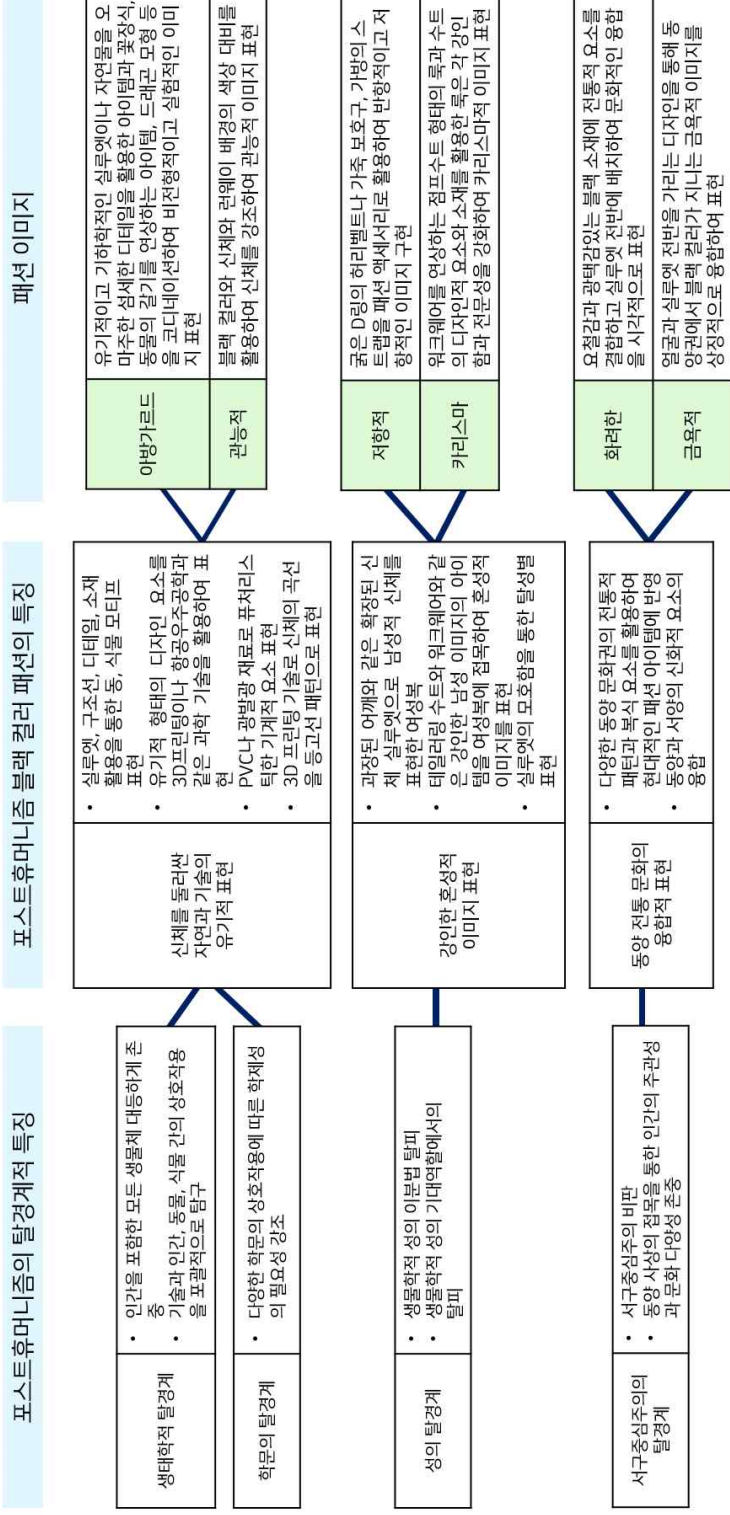


Figure 1. Characteristics of Posthumanism and Posthumanist Black Color Fashion with Corresponding Fashion Images

‘식물과 동물의 결합’의 경우에는 식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의상의 실루엣과 구조선에 적용하며, 동물적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피부 같은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의 예로, 안나키키(Annakiki)의 2023년 F/W 콜렉션에서는 식물의 뾰족한 가시와 물결 모양을 연상시키는 형태들이 의상의 실루엣으로 구현되었으며, 식물의 잎맥을 연상케 하는 곡선이 의상의 구조선 및 누빔 패턴에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긴 피를 후드의 상단에 배치하거나 긴 드레스의 스트라이프 패턴에 적용함으로써 동물의 갈기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인간과 기술의 결합’은 도나 헤르웨이의 ‘사이보그(cyborg)’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이보그’ 개념은 정보과학과 사이버네틱스를 통해 유기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와 기술 사이의 구분이 없어진 ‘자연문화적’ 형태를 지칭한다(Smelik, 2022b). 패션에서는 이러한 혼종적인 ‘인간과 기술의 결합’은 ‘기술의 유기적 형태로의 결합’으로 구현되었다.

‘기술의 유기적 형태로의 결합’의 사례로 아이리스 반 헤르펜의 2018년 Spring 쿠티르 콜렉션(Figure 3)이 있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은 유기체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를 기계적 요소와 결합하여 인간과 비인간적 요소의 조화를 표현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디자이너이다(Smelik, 2022a). 반 헤르펜은 이 콜렉션에서 브랜드의 핵심 기술인 3D 프린팅을 동양 철학의 ‘음과 양’에 적용하여 ‘기술의 유기적 형태로의 결합’을 보여주었다(Verner, 2018).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작은 모티프들은 몸을 감싸는 튜(tulle) 소재에 서로 연결되어 신체 위의 비늘을 연상케 하였다(Figure 3). 그리고 이러한 모티프들은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무늬를 형성하고, 얼굴을 덮어 머리 위까지 연장되면서 유기체적 형태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반 헤르펜의 디자인에서 각 모티프에 쓰인 3D 프린팅은 기술을 상징하고, 신체와 이를 둘러싼 패션은 유기체를 상징하게 되어 각 요소를 음과 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는 기계적 요소와 유기체적 요소의 결합을 보여주며 ‘음과 양’의 조화와 같이 기술과 자연이라는 구분을 넘어서 기술과 유기체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또 다른 사례로, 크리스찬 디올(Dior)의 2022년 F/W 콜렉션 오프닝 룩(Figure 4)에 사용된 “광발광 튜브(photoluminescent tubes)”는 우주 장비 연구에 쓰이는 기술을 패션에 접목한 것이다. 이는 착용자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기술 도입의 예(Dairlab, n.d.)로, 블랙 컬러의 바디 수트(bodysuit)에 튜브가 파이프

와 같은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 기계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튜브가 발광하면서 유기적 형태로 배치된 선의 형태만 남아 모델의 움직임이 유기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은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 특징을 통해 아방가르드, 관능적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는 실험적이며 동시에 기술과 유기체적 요소 융합을 통해 자연을 상기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블랙 컬러 패션에서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는 착용자의 ‘정체성을 획기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패션 아이템 자체의 비전형적 디자인을 통한 획기적 표현’과 ‘패션 아이템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획기적 표현’이라는 두 가지 표현적 특징을 보인다(Je & Lee, 2009; Lee & Ha, 2020).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 또한 일반적인 블랙 컬러 패션의 아방가르드한 이미지가 지니는 특징과 같이, 패션 아이템 자체의 실루엣이 유기적이고 과장된 기하학적 형태를 지니거나, 꽃잎이나 비늘과 같은 자연물을 연상시키는 섬세한 디자인이 디테일로 활용되는 비전형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코디네이션에서는 얼굴 전체를 덮는 꽃장식이나 동물의 갈기를 연상하는 길고 굵은 피부가 전반에 배치된 아이템, 사실적인 드래곤 모형과 같은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함께 스타일링 하여 차별화된 정체성을 실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탐구하였다.

또한, 블랙 컬러 패션은 신체나 외부 배경 색으로부터 의상을 구분하여 신체의 실루엣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신체의 굴곡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바디컨서스적 특징을 지니며, 관능적 이미지를 구현한다(Je & Lee, 2009; Lee & Ha, 2020; Seok & Geum, 2012).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서도 신체와 배경의 색상 대비를 활용하여 신체를 강조하는 관능적 이미지가 분석되었다. Figure 3의 경우 블랙 컬러는 투명하게 비치는 신체와 런웨이의 밝은 배경 색상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신체의 실루엣과 내부가 강조되었고, Figure 4는 조명의 유무에 따른 블랙 컬러와 배경 색상의 대비를 활용하였다. 밝은 환경에서는 블랙 컬러가 지니는 축소성에 따라 신체를 압축하여 보여주었으며, 어두운 환경에서는 몸의 외곽을 둘러싼 발광 튜브가 ‘신체’의 실루엣을 어림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관능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을 주제로 하는 패션에서는 기술과 결합된 패션이 여전히 인간의 신체를 강조하며, 이는 인간의 ‘몸’에 대한 “체현(embodiment)”을 중요시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장(Lee, 2022)을 대변한다.



Figure 2. *Noir Kei Ninomiya Fall 2018 RTW #look 1*
(www.firstviewkorea.com)



Figure 3. *Iris van Herpen Spring 2018 Couture #look 14*
(www.firstviewkorea.com)



Figure 4. *Christian Dior Fall 2022 RTW #look 1*
(www.firstviewkorea.com)

2.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

성적 구분에 따른 패션은 1960년대 후반과 2010년대를 기점으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 이전의 패션이 남성 중심적이며 특정 계층을 위한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면 1960년대 후반 이후의 패션은 여성성에 대해 고찰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대중에 초점을 맞추었다(Barnard, 2014). 해당 시기를 통해 여성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부여받은 여성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주체성을 탐색하였지만, 생물학적 성의 구분에 따른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는 여전히 식별 가능하였다. 2010년대 이후 패션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다양한 젠더와 성 정체성을 포용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패션의 구분이 모호해져 서로 섞인 형태가 나타났다(Beyer, 2023).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 특징은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리스 이미지(Je & Lee, 2009)와 일맥상통하며, 남성과 여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젠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안티젠더룩(antigender look)과 연결된다.

가레스 퓨의 2018 F/W 컬렉션(Figure 5)은 과장된 파워숄더 자켓과 하이웨이스트 바지의 벨트로 착장된 형태로, 상하의를 같은 스트라이프 원단으로 구성하여 상하의가 연결되는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특히 넓은 어깨와 남성 정장에 사용되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통해 권위적이고 엄격한 이미

지를 강조하며, 여성복에서의 이러한 남성적 패션 요소는 중성적이고 강인한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다음의 디자인(Figure 6)은 슬리브리스 점프수트(sleeveless jumpsuit)에 갑옷을 연상시키는 어깨와 팔꿈치 보호구를 오버 레이어링(over-layering)하여 패션에 강인한 인상을 부여하였다. 블랙 컬러의 가죽 소재와 오버 레이어링 기법은 어깨와 팔의 실루엣을 확장시켰고, 점프수트의 로우웨이스트 라인과 길게 연장된 밑위 길이는 중성적인 실루엣을 형성하여 성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마린 세르의 디자인(Figure 7)은 슬리브리스(sleeveless) 형태의 점프수트에 백팩 가방에서 활용되는 넓은 스트랩을 벨트로 적용하였고, 다양한 사이즈의 포켓을 구성하여 기능성을 부여한 유틸리티 워크웨어(workwear)를 연상시켰다. 전통적인 남성의 전유물인 노동복의 형태에 여성성을 강조하는 허리벨트를 착용한 중성적인 이미지의 모델은 성별의 모호함을 강조하는 안티젠더 룩을 구현하였다. 허리벨트를 활용하여 실루엣을 조정하는 점은 가레스 퓨 컬렉션에서도 공통되게 분석되며, 과장된 파워숄더 아우터에 허리벨트를 조여 허리를 강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어려운 실루엣을 형성하였다.

다음과 마린세르의 디자인은 기존 패션에서 보기 드문 단단한 보호구와 같은 추가 피스나 가방의 스트랩과 같은 부자재를 블랙 컬러와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액세서리의 사용은 혼성적인 실루엣을 연출하며 강

인한 인상을 부여하였고, 이와 함께 블랙 컬러가 가진 특유의 색채의 중립성은 성별 구분을 초월하려는 탈규범적 저항의 표현으로 작용하였다(Lee & Ha, 2020).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 특징에 따른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이미지는 저항적 이미지와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가진다.

기존 블랙 컬러 패션에서 카리스마 이미지는 자신감과 위엄, 근엄, 전문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범주로 동시에 주체적 표현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주류를 따르지 않고 고유의 정체성 표현을 통해 타인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의지와 깊이 관련된다(Suh & Kim, 2011). 이러한 블랙 컬러의 성격은 블랙 컬러 패션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존재론자들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와 주체적인 사고로 상징되며 사회적 규범과 전통적 역할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를 반영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Behlen, 2017).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서도 휴머니즘이 제시한 성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여성 패션과 남성 패션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체적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저항적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특히 굵은 D링 벨트나 가죽 보호구, 가방 스트랩 벨벳이 지니는 딱딱한 이미지는 저항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저항적 이미지는 패션을 통해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강인함과 전문성 등 우월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카리스마적 이미지로 연결된다. 카리스마적 이미지 중에서도 ‘강인한 혼성적 이미

지 표현’에서는 남성 노동자의 워크웨어를 연상시키는 점프수트 룩을 통해 강인함이 부각되었고, 남성 수트(suit)의 요소와 소재를 활용한 룩을 통해 전문성이 강조되었다.

3.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

조르조 리엘로(Giorgio Riello)(Riello, 2022)는 “서구권의 패션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반면 비서구권의 패션은 소극적이며 결국 서구권의 패션으로 교체된다는 기존 패션계의 서구중심적 인식”을 지적하였다. 문화 인류학자 산드라 니센(Sandra Niessen)(Niessen, 2003)은 패션계의 이러한 인식 형성이 문화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식민 시대를 지나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서구권 패션의 엘리트가 자신이 타인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가꾸려 하였던 반면 비서구권 패션은 문화 고유의 스타일을 간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구권 패션은 ‘새로움’을 의미하고, 비서구권 패션은 ‘예전의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권의 패션 런웨이(runway)는 패션의 ‘새로움’이라는 기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서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 특징은 패션 런웨이에서 동양 문화권의 고유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구권 패션의 ‘새로움’과 비서구권 패션의 ‘전통’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파괴하



Figure 5. Gareth Pugh
Fall 2018 RTW
#look 2
(www.firstviewkorea.com)



Figure 6. Christian Dior
Fall 2022 RTW
#look 19
(www.firstviewkorea.com)



Figure 7. Marine Serre
Spring 2020 RTW
#look 4
(www.firstviewkorea.com)



Figure 8. Gucci
Fall 2018 RTW
#look 29
(www.firstviewkorea.com)



Figure 9. Gucci
Fall 2018 RTW
#look 15
(www.firstviewkorea.com)



Figure 10. Xander Zhou
Fall 2018 RTW
#look 2
(www.firstviewkorea.com)

고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융합과 조화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Homi K. Bhabha)가 주장한 문화의 “혼종된 공간(hybrid space)”인 “제3의 공간(a third space)”과 유사하다. “제3의 공간”은 세계화를 통한 문화적 교류 속에서 형성되며, 이 공간에서는 “민족과 문화에 관한 이분법적 구분”이 사라지고, 문화는 유동적이어서 주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융합된다(Haehnel, 2019).

패션에서 다른 문명권의 전통과 융합된 이미지는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스닉 패션의 경우 비서구의 전통적인 복식 스타일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것부터 현대적 패션 아이템에 비서구의 전통적 모티프를 활용하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Kim, 2010).

구찌의 2018년 F/W 패션 콜렉션에서는 아시아 문화권의 전통 사원을 연상시키는 헤드피스와 단청 문양을 연상시키는 로고 그래픽을 착장 전반의 시스루 소재에 표현하였고(Figure 8), 로마 복식을 연상시키는 드레이퍼리한 드레스에 중앙 아시아의 전통 복식을 연상시키는 헤드피스를 믹스매치하여 에스닉한 무드를 강조하였다(Figure 9). 이러한 에스닉한 무드는 또한 에스닉 문양의 크리스탈 소재와 메탈릭한 소재의 블랙 컬러를 매칭하여 강조되었으며 Figure 8의 디자인과 함께 다채로운 블랙 컬러 소재의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디자이너 샌더 주(Xander Zhou)는 2018년 F/W 콜렉션에서 중국의 전통적 요소를 테일러드 코트와 헤드피스에 융합하였다. 샷갯을 연상시키는 헤드피스는 전반적인 실루엣을

감추었으며 의상이 드러나는 부분에는 중국 전통 회화 기법인 공비 기법(Gongbi)을 활용하여 표범과 같은 맹수를 묘사하였다(Figure 10)(DSCENE, 2018). 이 작품에서 블랙 컬러는 얼굴과 신체 노출을 제한한 디자인과 함께 동양권에서 무관이나 선비, 혹은 수행자의 의복 컬러로 사용되어 왔음을 상징하며, 이는 금욕적 이미지를 강조한다(Song, 2000; Seok & Geum, 2012).

이에 따라,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서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 특징을 통해 화려한 이미지와 금욕적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블랙 컬러 패션에서 화려한 이미지는 소재 자체의 ‘요철감’이나 ‘광택감’을 통해 표현되며(Shin & Choi, 2014), 메탈릭 방적사가 활용된 소재처럼 금속의 성질이 강조될 때는 퓨처리스트리한 무드가 강화된다(Je & Lee, 2009).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서도 블랙 컬러의 요철감이 두드러지는 소재들을 오버 레이어링 기법과 결합하고 메탈릭 방적사 소재를 전체 실루엣에 활용하여 화려한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이는, 다양한 동양 문화권의 요소를 활용하여 문화적 융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 특징을 통해 전통적인 블랙 컬러 패션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금욕적 이미지와 양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금욕적 이미지는 동양권에서 블랙 컬러가 ‘수련’을 상징하여 욕구를 다스리는 금욕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서구 문화의 정서적 요소가 패션에 상징적으로 융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블랙 컬러는 죽음과 어둠과 같은 부정적인 상징성뿐 아니라, 동시에 현대성, 관능, 주체성과 같은 다차원적인 특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특성은 고정된 이미지나 특성에 얽매이지 않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탈경계적 성격은 고정된 정체성이나 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탈경계적 특징은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을 보이며, 각 패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휴머니즘 생태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과 같은 비인간적 유기체들, 그리고 이 유기체들이 속한 환경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생태학의 개념을 확장한다.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자연과 기술로 볼 수 있으며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에서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결합'과 '인간과 기술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간과 자연의 결합' 중 '식물과의 결합'과 '식물과 동물의 결합'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간과 기술의 결합' 중 '기술의 유기적 형태로의 결합'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식물과 동물, 인간 그리고 기술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시각적 결합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문 것으로,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의 생태학적 조화를 나타내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신체를 둘러싼 자연과 기술의 유기적 표현'의 특징에 따른 블랙 컬러 패션 이미지는 다른 종의 형태를 실험적으로 결합하는 데에서 아방가르드 이미지가 표현되었고, 인간의 신체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포스트휴머니즘 사고에 따라 신체 실루엣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능적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둘째,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 특징은 생물학적 성의 구분법과 이에 따라 기대되는 패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패션에서 성에 관한 다원성과 모호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안티젠더 패션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강인한 혼성적 이미지 표현' 특징에서 패션의 이미지는 기존의 성적 규범과 이에 따른 패션을 부정하는 저항적 이미지와 패션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를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전문성이나 강인함을 돋보이게 하려는 카리스마적 이미지가 분석되었다.

셋째,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 특징은 서구권과 비

서구권의 패션에 관한 문화적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빚어진 서구권 패션과 비서구권 패션의 새로움과 예전의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 문화와 비서구권 문화의 융합은 비서구권 문화의 디자인 디테일을 적극적으로 접목한 에스닉한 스타일을 통해 표현되었다. '동양 전통문화의 융합적 표현' 특징에서 패션 이미지는 블랙 컬러 소재가 지니는 화려한 이미지와 동시에 동양 문화권에서의 블랙 컬러가 가지는 금욕적인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화려한 이미지와 금욕적 이미지라는 양가적인 이미지는 호미 바바의 '제3의 공간' 이론에서 설명하는 문화적 교류와 융합이 가지는 복합적 성격을 드러낸다.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은 아방가르드, 관능, 저항, 카리스마, 화려함, 금욕의 이미지를 포괄한다. 탐색적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인간과 비인간적 유기체, 기계의 시각적 결합을 통해 생태학에서 인간의 '주체 없애기'를 표현하고, 인간과 자연, 기술의 불가분적 관계를 함의한다. 또한, 관능적 이미지는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신체와 그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 관한 노력을 반영하며, 저항적 이미지는 기존 성별 구분에 따른 규범에 도전하며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카리스마 이미지는 자신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저항적 의지와 관련하여 남들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위엄성을 획득하고자 함을 표현한다. 화려함과 금욕의 이미지는 문화적 요소들의 포용과 공존을 각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방식으로 융합하여 포스트휴머니즘의 의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현대에 대두된 포스트휴머니즘 블랙 컬러 패션의 성격과 함의를 다층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포스트휴머니즘을 블랙 컬러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타 컬러를 활용한 포스트휴머니즘 패션의 분석은 포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후속 연구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References

- About. (n.d.-a). *SHOW studio*. Retrieved July 22, 2024, from <https://www.showstudio.com/about>
- About. (n.d.-b). *DSCENE*. Retrieved July 22, 2024, from <https://www.designscene.net/about>
- About us. (2011, March 4). *AnOther Magazine*. Retrieved July 22, 2024, from <https://www.anothermag.com/about-us>
- About us. (n.d.). *The Guardian*. Retrieved July 22, 2024,

- from <https://www.theguardian.com/about>
- Aretoulakis, E. (2014). Towards a Posthumanist ecology. *Europe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18(2), 172–190. doi: 10.1080/13825577.2014.917005
- Barnard, M. (2014). *Fashion theory: An introduction*. Abingdon, UK: Routledge.
- Behlen, B. (2017). The many meanings of the color black in postwar Paris. In J. Faiers, & M. W. Bulgarella (Eds.), *Colors in fashion* (pp. 169–185). London, UK: Bloomsbury.
- Beyer, J. (2023). Antigender fashion: JW Anderson and gender-fluid Fashion. *ZoneModa Journal*, 13(1), 1–18. doi: 10.6092/issn.2611-0563/17079
- 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Cambridge, UK: Polity Press.
- Castañeda, S. E. (2022). *Posthumanism in the fashion industry: On human animals and cybor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antiago de Compostela, Santiago de Compostela, Spain.
- Choi, J. H. (2011a).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Posthuman body in fashion illustr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9), 1085–1098. doi: 10.5850/JKSCT.2011.35.9.1085
- Choi, J. (2011b). An analysis of Posthuman's body type and fashion in SF movie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3), 473–487. doi: 10.29049/rjcc.2011.19.3.473
- Choi, S. (2023). *The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expressed in fashion im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ristian Dior Fall 2022 RTW #look 1.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Christian Dior Fall 2022 RTW #look 19.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Connolly, W. E. (2010). Materialities of experience. In D. Coole, & S. Frost (Eds.),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pp. 178–200).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oole, D. (2010). The inertia of matter and the generativity of flesh. In D. Coole, & S. Frost (Eds.),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pp. 92–115).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H. S. Cho, S. W. Jeong, J. S. Kim & J. S. Kwon, Trans.). Seoul: Korea: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Dairlab. (n.d.). *Dior AW 22/23: A new concept of fashion*.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dairlab.com/en/dior/>
- Douedari, S. (2022, February 14). All black: The desire to wear all black and its unconscious message to ourselves. *L'OFFICIEL*.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lofficiel.at/en/fashion/all-black-the-desire-to-wear-all-black-and-its-unconscious-message-to-ourselves>
- DSCENE. (2023, February 27). *MFW: Annakiki Fall Winter 2023 Collection*.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designscene.net/2023/02/annakiki-fw23.html>
- DSCENE. (2022, July 6). *Iris Van Herpen Autumn Winter 2022.23 Haute Couture collection*.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designscene.net/2022/07/iris-van-herpen-fw22-couture.html>
- DSCENE. (2018, January 7). *LFWM: Xander Zhou Autumn Winter 2018 Collection*.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designscene.net/2018/01/xander-zhou-aw18.html>
- Evans, G. (2018a, February 28). Show Report: Maison Margiela A/W 18 Womenswear. *SHOW studio*. Retrieved January 10, 2024, from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winter-2018/maison_margiela_paris_womenswear_a_w_18/georgina_evans_reports_on_the_maison_margiela_show
- Evans, G. (2018b, June 11). Show Report: Xander Zhou S/S 19 Menswear. *SHOW studio*. Retrieved January 10, 2024, from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spring-summer-2019/xander_zhou_london_menswear_s_s_19/georgina_evans_reports_on_the_xander_zhou_show
- Evans, G. (2018c, June 18). Essay: Posthumanism in fashion. *SHOW studio*. Retrieved January 10, 2024,

-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queer/essay_posthumanism_in_fashion
- Evans, G. (2018d, July 4). Show Report: Maison Margiela Artisanal A/W 18 Haute Couture. *SHOW studio*. Retrieved January 10, 2024, from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autumn-winter-2018-haute-couture/maison_margiela/georgina_evans_reports_on_the_maison_margiela_artisanal_show
- Ferrando, F. (2021). *Philosophical Posthumanism* (J. S. Lee, Trans.). Paju, Korea: Acanet. (Original work published 2019).
- Friederichs, K. (1958). A definition of ecology and some thoughts about basic concepts. *Ecology*, 39(1), 154–159. doi: 10.2307/1929981
- Fury, A. (2018, September 29). The ferocious complexity of Noir Kei Ninomiya. *AnOther Magazine*. Retrieved January 2, 2024, from <https://www.anothermag.com/fashion-beauty/11210/the-ferocious-complexity-of-noir-kei-ninomiya>
- Gareth Pugh Fall 2018 RTW #look 2.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Gucci Fall 2018 RTW #look 15.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Gucci Fall 2018 RTW #look 29.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Haehnel, B. (2019). Fashionscapes, hybridity, and the white gaze. In E. Gaugele, & M. Titton (Eds.), *Fashion and Postcolonial critique* (pp. 170–185). London, UK: Sternberg.
- Han, N., & Park, J. (2020). A study o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in contemporary fashion show. *Journal of Fashion Design*, 20(3), 19–33. doi: 10.18652/2020.20.3.2
- Han, Y., Kim, I., & Kim, J. (2015). *Fashion design: Fashion merchandising*. Seoul, Korea: Kyungchunsa.
- Herbrechter, S. (2013). *Posthumanism*. London, UK: Bloomsbury.
- Herbrechter, S. (n.d.). *Critical Posthumanism: An overview*. Retrieved from <https://stefanherbrechter.com/wp-content/uploads/2021/03/Critical-Posthumanism-An-Overview.pdf>
- Herbrechter, S., & Callus, I. (2008). What is a Posthumanist reading?.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13(1), 95–111. doi: 10.1080/09697250802156091
- Iris van Herpen Spring 2018 Couture #look 14.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Je, G., & Lee, K. (2009). Fashion coordination of black color in fashion collection: Focused on 2005~2007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7), 1003–1013.
- Kang, M. (2015). What is Humanism?: Answers from Sartre and Foucault. *Researches in 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38(1), 1–31.
- Kim, A. (2014). The Cyborg and her sisters: Rhetorical strategy of Donna Haraway. *Korean Feminist Philosophy*, 21, 67–94. doi: 10.17316/kfp.21..2014.05.67
- Kim, D. (2019).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human/Posthuman discourses emerging from Cyberne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24(5), 836–848. doi: 10.5909/JBE.2019.24.5.836
- Kim, G. R., & Chae, K. (2004). The study about black dress image of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8), 1076–1087.
- Kim, S. (2007).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little black dress in the modern fashion: Mainly focused on works after the year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4), 18–29.
- Kim, Y. (2021). A study on art signs in Poststructuralism: Implications for art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35(1), 136–164.
- Kim, Y. (2010). A study on Ethnic's major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ocus on 2005 S/S–2010 F/W Paris, Milan Collection. *Journal of*

-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11), 1844-1858.
- Koh,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black and economic trends in Women's fashion.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44(2), 264-271. doi: 10.1002/col.22287
- Kwon, S. H., Syn, H. Y., & Lee, I. S. (2015). Study on symbolism of black fashion in Sportism fashion of Alexander Wa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3), 149-160. doi: 10.18652/2015.15.3.10
- Lee, D. S. (2022).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흐름: 캐서린 헤일스, 캐리 울프, 그레이엄 하먼* [Three flows of Posthumanism: N. Katherine Hayles, Cary Wolfe, Graham Harman]. Seoul, Korea: Galmuri.
- Lee, J. H., & Ha, J. (2020). Black fashion-manias' images and fashion styles.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22(2), 139-148. doi: 10.5805/SFTI.2020.22.2.139
- Lee, J., Kim, M., Lee, Y., Ha, Y., & Kim, J. (2020). Characteristics of black color schemes appearing on some luxury fashion brands. *Journal of Human Ecology*, 24(3), 19-34. doi: 10.36357/joh.2020.24.3.19
- Leitch, L. (2018, March 3). Noir Kei Ninomiya Fall 2018 Ready-to-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noir-kei-ninomiya>
- Loh, J. (2021). *Transhumanism and Posthumanism* (C. Cho, Trans.). Busan, Korea: Pusan National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18).
- Marine Serre Spring 2020 RTW #look 4.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Moss, J. (2018, February 23). Dissecting Gucci's Post-human pluriverse for A/W18. *AnOther Magazine*. Retrieved January 10, 2024, from <https://www.anothermag.com/fashion-beauty/10616/dissecting-gucci-s-post-human-pluriverse-for-aw18>
- Nayar, P. (2014). *Posthuman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 Niessen, S. (2003). Afterword: Re-orienting fashion theory. In S. Niessen, A. M. Leshkovich, & C. Jones (Eds.), *Re-orienting fashion: The globalization of Asian dress* (pp.243-266). New York, NY: Berg.
- Noir Kei Ninomiya Fall 2018 RTW #look 1.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Pfeiffer, A. (2022, March 2). Dior and Saint Laurent: An elevated discussion between past and future. *The Guardian*. Retrieved January 10, 2024, from <https://www.theguardian.com/fashion/2022/mar/02/dior-and-saint-laurent-an-elevated-discussion-between-past-and-future>
- Pithers, E. (2022, July 4). Iris van Herpen Fall 2022 Couture.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couture/iris-van-herpen#gallery-collection>
- Riello, G. (2022). Worlds with no fashion? The birth of Eurocentrism. In E. Paulicelli, V. Manlow, & E. Wissinger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fashion studies* (pp.11-21). New York, NY: Routledge.
- Seok, S., & Geum, K. (2012). A study on black fashion preference of Korean women in modern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1), 29-48. doi: 10.7233/jksc.2012.62.1.029
- Shin, E. J., & Choi, H. S. (2014). Fashion design development based on the symbolism of the color blac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1), 189-210.
- SHOW studio. (2019a, January 22). *Live review: Iris Van Herpen S/S 19 Haute Couture* [Video]. *SHOW studio*.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spring-summer-2019-haute-couture/iris_van_herpen/live-review-iris-van-herpen-ss-19-haute-couture?autoplay=1
- SHOW studio. (2019b, September 24). *Live review: Marine Serre S/S 20 Womenswear* [Video]. *SHOW studio*.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showstudio.com/collections/spring-summer-2020/marine-serre-ss-20-womenswear/live-review?autoplay=1&gallery=false&look=1>
- Smelik, A. (2022a). Fractal folds: The Posthuman fashion

- of Iris van Herpen. *Fashion Theory*, 26(1), 5–26. doi: 10.1080/1362704X.2020.1850035s
- Smelik, A. (2022b). A Posthuman turn in fashion. In E. Paulicelli, V. Manlow, & E. Wissinger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fashion studies* (pp.57–64). New York, NY: Routledge.
- Song, E. (2023). Posthuman Feminism and information theory: Focusing on the work of N. Katherine Hayles on Cybernetic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128, 41–73. doi: 10.23017/inmun.2023.128.41
- Song, G. O. (2000). *Color characteristics of black for fashion color plan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uh, S., & Kim, Y. (2011). The image of black color in fashion formed by existentialism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61(1), 84–93.
- Tansley, A. G. (1935). The use and abuse of vegetational concepts and terms. *Ecology*, 16(3), 284–307. Retrieved from <https://www.jstor.org/stable/1930070>
- Verner, A. (2018, January 22). Iris van Herpen Spring 2018 Couture.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4,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couture/iris-van-herpen>
- Vogue. (2024, July 15). *Britannica*. Retrieved July 22, 2024, from <https://www.britannica.com/topic/Vogue-American-magazine>
- What is ecology?. (n.d.).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Retrieved February 18, 2024, from <https://www.esa.org/about/what-does-ecology-have-to-do-with-me/>
- Xander Zhou Fall 2018 RTW #look 2. (n.d.). [Photograph]. *FirstviewKorea*.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https://www.firstviewkorea.com/#!/firstview/runway/photo>
- Yu, G., Jung, J., Kim, Y., & Kim, H. (2012).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Korea: Parkyoungsa.
- Yune, J., & Kim, Y. (2005). The images of fashion design transmitted by achromatic colors.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55(3), 122–135.

Received (August 22, 2024)

Revised (September 23, 2024; September 24, 2024)

Accepted (September 25, 2024)